

대승불교 안의 염불선 위치 조명한다

청화사상연구, 23일 '대승불교와 염불선' 세미나

대승불교 안에서 염불선의 위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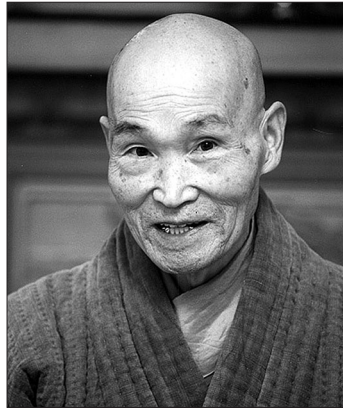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승불교와 염불선'을 주제로 제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 사상과 실천이 어떤 대승경전에 근거하는지를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대승불교 경론 상에 나타난 염불선과 선정 위치'를, 동국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관무량수경 16관법과 염불선'을, 최동순 불교학술원 교수는 '염불선법의 수승체계 확장에 따른 육묘법문의 호흡체계 채택'을 세미나에서 각각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 동국대 외래교수 정운 스님, 김호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대승불교



계율을 중시한 대표적 선승이자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 스님.

교 속에 나타나는 염불선 사상을 조명하는 불사는 매우 중요하다. 청화 스님도 <아미타경> 등 대승 경전을 실상염불선의 주요 소의경전으로 삼았다"면서 "염불선은 신앙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세계 불교와 소통할 수 있다. 앞으로 학회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염불선학의 기초를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의보감에는 불교 의학 사상 담겨져”

이기운 교수, <불교사연구> 기고논문서 주장

의학적인 면에서 조선시대는 중국 의학에서 벗어나 자체 의학을 정립하는 시기다. 조선 초기 <의방유취>를 통해 삼국시대 이래 전통적인 향약의 정리가 이뤄졌고, 후기에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통해 중국과 조선의 여러 의서를 통합해 현실에 맞는 의서 제작이 시도됐다. 또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등을 통해 조선 특유의 사상의학이 제창되기도 했다.

조선 시대 자체 발행 의서의 근본 바탕에는 불교 사상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기운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사연구> 8호에 기고한 논문 '조선 후기 의학서 간행과 불교'에서 조선 후기 발행된 <동의보감>과 조선 초기 의학서 <의방유취> 내 불교 사상에 대해 고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동의보감>은 명나라 초까지 86종의 의서가 인용됐으며, 유교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불교와 도교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특히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며 불교의 사대설(四大設)을 차용하고, 장생술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호흡법인 '천태 태식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의보감> 내경권 권에는 "석가가 말하기를 '지수화풍이 화합해 사람을 이룬다. 근골과 기육은 모두 땅에 속하고 정, 혈, 인맥은 물에 속한다. 호흡과 체은은 불에 속하며, 영명과 활동은

바람에 속한다(하락)고 하였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동의보감>의 이런 설명은 근본불교에서부터 설하고 있는 불교의 사대설과 사대불순에 의한 사대병인설을 수용한 것으로 불교의학을 설하는 많은 경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중국 의서들에서 인용된 것을 <동의보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봤다.

동의보감 등 조선 의학서들

불교 사대설·태식법 영향

“의사가 되려면 불경 읽어야”

실증적 사상 조류 추론 가능

<동의보감> 내경권 제1기(氣)편에는 호흡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책은 "식신(識神)이 탁생하는 처음에 정혈(精血)과 더불어 합해 배배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오직 배꼽만이 뱃줄로 서로 이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호흡법은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에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지관 법문의 심경중병 환경에서는 태식법을 닦도록 하여, 6가지 대치법 중 지(止)의 대치법이 <동의보감>과 같은 태식법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의보감>에서는 이 태식



조선의 의성(醫聖)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닌 몸에 대한 전반을 다루는 사상서이다. 특히 불교의 사대설과 천태 태식법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는 조선 의학서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법을 <진전(眞詮)>의 인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나라의 <삼생삼요>에 <진전> 내용 전반부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서 "당시 천태 태식법은 천태 호흡법으로 널리 알려진 수행법으로 중국의서를 통해 <동의보감>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초기 의학서 <의방유취>는 불교에 대한 영향이 더욱 적극적이다. <의방유취> 1권에는 "불경을 읽지 않으면 대자대비의 덕성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러 학자들의 저술에 정통해야 하며, 그 다음에 불교, 도교에도 통해 의학의 원칙과 심오한 기술을 알게 된다"고 서술돼 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불경을 읽어야 하고, 불교

에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방유취> 역시 불교의 사대설을 인용하고 천태의 '육종기식(六種氣息)'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같은 조선 의서의 경향은 유·불·도의 실증적이고 실천적인 조선 후기 사상적 조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불교사연구> 제8집에는 △상산 해관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여성구) △구화 지장이 중국불교에 끼친 영향(고영섭) △16세기 지방군현의 입역체제와 승려의 부역(이성임) △왜란과 호란 이후 불교계의 변동과 추이(이중수) 등이 함께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공지능, 불교적으로 이해하려면?

불교평론, 지승도 교수 초청 열린논단 개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을 불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논단이 마련된다.

불교 학술계간지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록연구소는 공동으로 4월 21일 '인공지능의 불교적 이해'를 주제로 4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가 맡는다.

지 교수는 모든 사람을 이익을 주는 인공지능은 과학과 철학 종교를 통섭하는 초과학에 실마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10년간 붓다의 철학과 과학을 접

목한 인공지능과 지혜시스템에 관한 신기술 연구에 전념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그 성과를 정리한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라는 도발적 제목의 책을 펴낸 바 있다.

불교평론은 "세기의 대국이 끝나고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과 공포가 교차했다"면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단순히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불교 역시 인공지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02)739-5781 **신성민 기자**

110년 맞은 동국 불교, 위상·역할 재조명

4월 29일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개최

교내 국제선센터서 범회·세미나 서원식·에세이집 봉정식도 진행 "불교발전 원력 다지는 계기로"

불교계를 대표한 항일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 한국 근현대 문단을 이끈 미당 서정주, 불교시문학의 거장 김달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백석육,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용 스님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답은 동국대 불교학과다.

동국대 불교학과가 창설 11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불교 증흥에 기여한 동문들의 업적을 재조명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회장 김용

표)와 불교학과(학과장 고영섭)는 4월 11일 서울 인사동 음식점 자리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내 국제선센터에서 제110주년 기념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진신 명진학교는 1906년 5월 8일 개교한 불교인재 양성 교육기관이었다. 점차 기관이 커지며 불교사범학교, 중앙학림, 중앙불전 등으로 승격됐고 후에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했다. 불교인재 양성의 맥은 단과대인 불교대학(불교학과)로 이어진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장은 "110년간 배출한 동문은 3000여 명으로 이중 군법사 500여 명, 교법사 50여 명, 교수 100여 명 등 한국불교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

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먼저 식전행사로 명진학교로부터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가 있기까지의 역사 사진을 전시하는 기념사진전과 풍물 길놀이패 공연이 펼쳐진다.

본행사인 1부는 기념범회로 국제선센터 대강전에서 진행된다. 범회에서는 이동배 교법사단장, 함현준 군법사 대표, 이윤석 불교학부 대표, 서정원 대학원 불교학과 대표 등의 서원이식이 진행된다.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을 시작으로 서용·한암 스님 등 불교학과 동문 스님들과 김법린, 서정주, 조치훈, 목정배, 고의진, 이광태 등 근현대 동문학자, 2016학번 이성진 학생까지 세대별 81명의 대표를 모은 동문에세이집 <삼보의 언덕에 오르다> 봉정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한국불교 증흥과 불교학

과 동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념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선진규 부총장 정동원 원장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불교 제종단과 불교학과 동문', △함현준 육군 군법사의 '군포교와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박영동 동대부교과 교법사의 '종합학교 불교교육과 불교학과' △김한성 동국대 강사의 '한국불교학계와 동국대 불교학과' 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용표 동문회장은 "한국불교 발전의 이면에는 불교학 발전과 불교인재양성의 터전이 되어 온 불교학과가 있었다"며 "전반에 전념한 불자들이 함께 동참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다시금 불교 발전의 원력을 다지고자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02)2260-312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다량소장처 유물관리 교육

불교중앙박물관 14~15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6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유물관리 교육'을 4월 14~15일 이틀 동안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물관리 교육은 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기본 및 전문 소양 교육으로, 보유자의 자발적 관리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유물관리 교육은

문화재 관리 방법 및 관리 실습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선진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 사례를 주제로 진행하며 전통사찰의 성격을 고려한 사찰의 종합 정비방법 및 문화재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법을 살펴보는 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강의는 오전 9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내용은 국내, 국외 문화재 보존, 수리 사례, 사찰종합정비의 이해 등이 주를 이뤘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 Y-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 법당앰프 설치비용
 -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마이크 1개
 -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헤드셋, CD기, 쿠즈체, 마이크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Y-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중·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증승

나. 중급과정(4개월)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다. 고급과정(6개월) ■ 시련, 삼신이운(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염사식, 구병사식, 봉송편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후원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장작법

■ 특 강 : 종사원 종사원반, 점안의식, 시립(대배, 예수제)의식 등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